

文 “국가차원 에너지밸리” vs 安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대선후보 광주·전남 공약 점검 (1) 에너지밸리

‘5·9 장미 대선’에서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호남 쟁탈전’을 벌이면서 경쟁적으로 각종 광주·전남지역 대선공약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의 주요 공약사업의 방향은 엇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진 계획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에너지산업밸리 조성사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을 광주·전남 미래 비전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두 후보 측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의 대부분의 주요 세부사업들은 명칭도 아예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광주·전남 공동 에너지산업밸리 조성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과제인 에너지밸리사업을 국가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밸리 조성 및 체계적 지원으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업에는 총 5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기간은 2018년~2027년까지 10년 간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남구 송촌동, 나주 금전면 일원에 약 10㎢(약300만평)의 면적을 영산강 에너지 뉴프론티어 시티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만 4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에는 에너지밸리 사이언스파크와 녹지·힐링공간, 주거·상업단지 등이 들어서며, 태양광·심부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에너지밸리 사이언스파크에는 직류(DC)전기활용한 에너지타운이 조성된다.

특히 문 후보의 공약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계 수준의 에너지 공과대학(한전 공과대학) 설립이 포함됐다.

■ 문재인 VS 안철수 에너지밸리 공약 비교

	문재인	안철수
공약	• 남구 송촌동·나주 금전면 10㎢에 영산강 에너지 뉴프론티어 시티 조성 • 사이언스파크에 에너지 타운 • 세계 수준 에너지공과대 설립	•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터미널 • 글로벌 해양케이블 연구거점 • 전력·ICT 융복합기술 연구 인프라 • 창업선도 지구 육성
사업비	5조5천억	8조원(국비 3조·민간 5조)
교통 공약	• 글로벌 에너지 융합기술 연구거점 조성 • 에너지 신기술 국제표준 연구 인프라 연계 구축	
해결 과제	• 특별법 제정·연구개발특구 확대 • 광주·전남 지방비 마련 어떻게	• 특별법·국가재정사업 추진 • 5조원대 민자 유치 실현 여부

아울러 융복합 케이블 연구개발 및 전력·에너지신산업 기초·응용 연구개발 등 글로벌 에너지융합기술 연구거점도 조성된다.

또한, 7KW급 심부지열 발전소 2기 건설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에너지밸리 정보통신센터 및 창업 지원센터가 들어서는 테크노 지원지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에너지밸리를 기업도시로 지정

해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전 공과대학의 경우도 에너지신기술 중심의 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5조5000억 원의 사업비 마련도 국비와 한전 등 민간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 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주시와 전남도로서는 지방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광주·전남 미래프로젝트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광주·전남 공동 에너지산업밸리 조성사업 공약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일원과 광양만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에 국비 3조, 민간투자 5조 등 총 8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력·ICT 융복합 신기술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 창업선도 지구 육성, 5개 국가(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간 전력망 연결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에너지융합기술 연구거점 조성 과 에너지 신기술 국제표준 연구·실증 인프라 연계 구축 등은 민주당 문 후보 공약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안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국가 간 송전망 건설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이다. 동아시아 5개국 간 전력망 연계와 경제·안보 등을 국가차원에서 합의해 전력공기업과 제조업체, 금융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발전사업의 진출을 지

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슈퍼그리드 터미널 및 해양케이블 연구·생산 거점 조성 등도 주목된다. 혁신도시에 글로벌 해양케이블 연구거점을 조성하고, 전력·에너지산업 관련 초전도·초자극장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기업 100개 설립과 전력·에너지 빅데이터 분석센터 유치 등 에너지신기술 창업선도지구 지정 및 육성 사업도 포함됐다.

안 후보는 이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전남 광양만권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을 중심으로 ‘월 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민간기업 진출 지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8조원의 사업비 중 민간사업비가 5조원에 이르는 만큼 민간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펜스 美 부통령 “한미 FTA 재검토”

산업 진출 장벽 너무 많고

5년간 무역적자 두 배 늘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검토(review) 및 개선(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량과 직접투자규모 등이 늘어난 사실을 상세히 열거하며 “(이와 같은 성과는) 박수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곧바로 “양국간 강력한 유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는 점에도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며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성장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에서도 ‘미국 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환영행사에서 연설 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주의’를 추구할 것이며, 무역은 양자간에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는 한미 FTA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이 첫 방한에서 FTA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

의’의 기조하에 무역 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해왔다.

펜스 부통령은 아울러 이날 연설에서도 한미간의 변함없는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전략도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또 연설 말미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합뉴스

5월 9일 청소년들도 대통령 뽑는다

운동본부 출범...전국 18세 미만 20만명 모의 투표

투표권 행사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청소년 선거인단 20만명이 5월 9일 대통령선거 때 모의투표로 대통령을 직접 뽑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전북운동본부’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는 전국 청소년 선거인단 모의투표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선 모의투표 진행은 한국 YMCA 전국연맹과 청소년 YMCA 회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선거 참여자는 현재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이하다.

청소년 YMCA 회원들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제공한 뒤 5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사전투표에 이어 선거 당일인 9일 전국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진행한다. 모의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직접 당선증

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운동본부는 “학교의 책상과 의자에서부터 입시제도, 그리고 취업까지 모든 것이 정치와 연관돼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정치를 관심 가지지 말아야 할 ‘19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도 다른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이며 엄연한 사회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만18세 참정권의 실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대선일에 맞춰 전북의 청소년들도 모의투표로 직접 대통령을 뽑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8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남·경남 시민단체 공동 유치 나서

전남과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201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공동 유치를 나섰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옛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추진위원회)와 ‘동서포럼’은 18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남·경남 시민사회 공동 유치 추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총회 유치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남도민과 경남도민은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이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여수박람회장에 전남·경남 공동 유치를 선언하며,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과 경남은 2010년 2월 이 총회의 광역 여수엑스포권 유치 다짐대회를 열어 참석자들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2010년 11월 전남지사와 경남지사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광역 여수엑스포권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수박람회장은 6만여명의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훌륭한 교통과 숙박 기반에다 박람회 사후활용 측면에서도 총회 개최 최적지이다”라며 “우리는 이번 총회의 여수박람회장 공동 유치와 전남·경남 분산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임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액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급매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²(33평)
- 교육환경 최상 / 불로초바로옆
- 시세 4억 3000만
- 급매 4억 1500만원

문의 010-9203-6161